

아빠 시신에서 추출한 정자로 태어난 '기적의 아기' 첫 등교



▲ 사진=twitter(NYPDMuslim)

죽은 아버지 시신에서 추출한 정자로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첫 등교를 했다. 등굣길은 죽은 아버지의 동료들이 호위했다.

지난 13일은 안젤리나 리우(4)는 첫 등교를 위해 어머니 페이사 리우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리우의 아버지 웬지엔 리우(32)는 2014년 12월 뉴욕 브루클린 지역을 순찰하다 피탄 총에 맞아 사망했다. 함께 순찰

차에 타고 있던 동료도 목숨을 잃었다. 사망 당시 리우의 아버지는 결혼 3개월차 새신랑이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순직 경찰관들을 애도하고 페이사 리우를 직접 위로하기도 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뜻밖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페이사 리우가 숨진 남편의 정자로 출산했다는 소식이었다.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녀는 남편의 시신에서 정자를 추출해 보존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후 24시간 이내까지는 정자를 얻을 수 있다.

남편 사망 2년 후, 보관하고 있던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을 시작한 그녀는 실패를 거듭한 끝에 2017년 세상을 떠난 남편을 닮은 안젤리나 리우를 얻었다.

이후 뉴욕경찰은 리우를 '기적의 아기'라 부르며 때마다 들여다보고 보살폈다. 지난 7월 4번째 생일 때도, 첫 등굣날에도 마찬가지로였다. 등교 첫날이었던 13일 한데 모인 12명의 경찰관은 죽은 동료를 대신해 리우의 입학식을 축하했다.

빗길 달리던 차가 버스정거장 지붕에



▲ 사진=bluradio.com

교통사고전문가도 고개를 가우뚱하는 교통사고가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했다.

20일 아르헨티나 엔트레리오스주의 14번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비행하듯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니 버스정거장 지붕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이날 엔트레리오스에는 많은 비가 내렸다.

소방대가 출동해 구조한 운전자는 곳곳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다행히 의식은 뚜렷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은 자동차가 버스정거장 지붕까지 올라간 경위다.

자동차가 올라 탄 버스정거장 구조물의 높이는 2m가 넘는다. 사고차량은 높이뛰기를 한 것처럼 높은 버스정거장 지붕 위로 올라갔다. 마치 누군가 손으로 집어 정교하게 지붕에 올려놓은 것처럼 추락하지 않고 지붕 위에 딱 멈춰 섰다.

운전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던 길이였다."면서 "무언가와 충돌한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쿡하는 충격과 함께 자동차가 붕 떠올랐고, 멈춘 뒤 보니 지상에서 높은 곳에 걸쳐 있었다는 게 운전자의 증언이다. 운전자는 사고가 난 콜론지역의 인근에서 파출소장으로 재임 중인 현직 경찰이었다.

교통사고 전문가들도 고개만 가우뚱하고 있다. 한 교통사고 전문가는 "커브가 시작되는 곳이라 아마도 빗길에 미끄러진 게 아닌가 싶지만 자동차가 공중으로 떠오른 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기대할 수 있는 건 운전자의 기억뿐"이라면서 "혹시 깜빡한 디테일이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확인을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묘지에서 사라진 묘비

새벽에 공동묘지에 들어가 동으로 만든 묘비를 무더기로 흠친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라타블라다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15일 새벽 발생한 사건이다.



▲ 사진=lamatanzainforma.com

공동묘지 관리직원들은 사건이 발생한 날 오전 7시쯤 출근해 묘지를 둘러보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셋을 공동묘지 출입구 인근에서 목격했다. 직원들은 "그들은 유난히 긴장하고 시간에 쫓기는 듯했다."고 말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직원들은 즉시 경찰에 전화했다. 웬만해선 출동하지 않는 경찰을 자극하기 위해 "범죄자로 보인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하자 두 명은 어느 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경찰은 나머지 한 명의 신원을 확인한

뒤 자동차의 트렁크를 열게 했다. 트렁크에는 동으로 만든 묘비가 잔뜩 실려 있었다. 자그마치 223개였다.

코로나19로 경제가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연 5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선 최근 동판을 노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지방 로사리오에선 100년이 훌쩍 넘는 건물의 동판이 최근 분실됐다. 1867년 준공된 지방신문의 사옥 건물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건물의 머릿돌 격인 동판에는 '지면은 독자들의 것'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앞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선 역사적 건축물로 지정된 분수대의 동판 3개가 하룻밤 새 한꺼번에 사라진 사건도 발생했다. 사라진 동판은 각각 무게 250kg짜리 초대형이었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 (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0030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